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권복순**

《차 례》

1. 문제 제기
2. 외부 세계로의 진출
 - 2.1. 문화의 충돌
 - 2.2. 융합의 도모
3. 겨루기의 특성과 다문화적 성격
4. 다문화시대와 여성의 삶
5. 마무리

〈요약문〉

이 연구는 가문장아기와 자청비를 대상으로 이들이 외부세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과 융합과정을 추출하여 다문화적 특성을 밝히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의의 주된 대상은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 가운데 여성 주인공인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385).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성으로 태어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맞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인물들에 해당한다. 이들이 겪는 고난은 신화적 측면에서는 신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의 과정이지만, 다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타문화권과의 충돌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의 공통점은 주류문화권의 인물들과 관계에 있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화적 우위를 앞세운 주류계층의 횡포 앞에서 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들을 둘러싼 세계는 현실세계와 겨루기 세계로 양분된다. 현실세계에서는 주류계층이 우세하지만 겨루기의 세계에서는 비주류계층인 여성주인공들이 우세하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두 여성 주인공들의 양상은 다르다. 가문장아기는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류와 비주류계층간의 벽을 허물고 주체로서의 삶을 개척한다. 반면 자청비는 성적열세를 만회하고자 남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류문화권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나 기존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

두 여성인물들이 펼치는 겨루기의 특징과 다문화적 특성을 관련지어 볼 때 가문장아기는 다문화주의 중에서도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를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적인 특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청비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문화다원주의 특성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문화적 평등을 추구하고 후자는 문화적 차별이 존재한다. 두 주인공들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난 서로 다른 다문화적 특성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겪는 결혼이주민들의 삶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결혼이주민 대다수가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타국인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가문장아기와 같이 타자로서의 삶을 벗어나 주체로서의 삶을 누리는 경우도 있고, 자청비와 같이 인종 차별을 당함으로써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 모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공존하

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주류문화, 비주류문화, 문화적 충돌, 문화적 융합, 평등, 차별, 공존

1. 문제 제기

이 글은 제주도 일반신분풀이의 여성주인공인 가문장아기와 자칭비가 외부 세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화적 충돌로 인한 겨루기 양상을 추출하고 다문화 특성을 밝혀 오늘날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어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화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곧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뿌리이며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앞에 접두사(multi)가 붙은 다문화의 개념은 미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인 여러 민족이 혼합된 인구구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한 국가 내부에 다수의 종족·민족·인종의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 이주한 독일 유대인 출신의 호라스 칼렌(Horace Kallen)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다.¹⁾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용어는 애초에 정치·경제 분야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는 인류학, 사회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하나의 연구

1)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강현출판사, 2010, 17쪽.

이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문학에서도 전통적으로 지배계층의 문학이 주류문학이라면, 피지배계층의 문학은 비주류문학에 해당한다. 구비문학은 비주류문학으로써 그 속에 비주류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화 속의 여성주인공들은 비주류계층의 인물들로서 주류문화권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계층, 인종, 세대가 다른 문화적 충돌을 경험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세분되는데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포함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같다. 그러나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한 국가 내에서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비주류사회와 그들의 문화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²⁾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더불어 한국 남성들과 외국 여성들로 맺어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2005년 43,121건으로 1년 전보다 21.6%(7,464)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³⁾ 이제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구비문학을 통해서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구비문학 중에서도 제주도 무속 신화의 여성주인공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신화 속의 여성주인공들의 혼인이 족내혼이 아니라 족외혼을 하는 양상이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혼인의 양상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화가 한낱 허구적 산물이지만 공상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전승자들이 몸을 담고

2)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08년 2월, 관동대학교, 1-3쪽 참조.

3) 평택대 다문화센터 편,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2007, 103쪽.

있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혼인은 문화와 문화간의 접촉과 소통을 전제로 한다. 공·통시적으로 혼인은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그 사회에 알맞은 형태를 띤다.⁴⁾

가문장아기와 자청비가 겪은 혼인형태는 일종의 족외혼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다른 지역으로 출가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은 족외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들과 문화적 충돌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주류문화에 편입되기도 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다문화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왜냐하면 다문화는 주류문화에서 벗어난 비주류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겨루기 화소를 통해 다문화적인 성격을 고찰하려는 까닭은 비주류문화권에 속한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주류문화권에 맞서서 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나가기 때문이다. 이들의 겨루기의 동인은 외부세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세력으로부터 차별을 당함으로써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차별은 문화와 문화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관계를 지향한다. 신화 속의 여성 인물들이 겪는 차별의 형태와 극복과정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과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⁵⁾

제주도 무속신화의 문화읽기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부분별 또는 개괄적

4) 혼인규제란(marriage regulation) 혼인이 성립되는데 있어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성사되는 내혼제와, 일정한 범주 밖에서만 성사되는 외혼제가 있는데 McLennan은 혼인을 집단간의 관계로 간주하고 족내혼과 족외혼의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김혜숙, 『濟州道 神話에 나타난 婚姻 研究』 『제대논문집(인문·사회)』 36, 제주대, 1993. 174쪽 재인용)

5)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민족, 인종,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살아왔던 이주민과의 공존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2.9, 113쪽)

연구 성과로 대별된다. 부분별 연구로는 <세경본풀이>에 주목하여 자청비를 다양한 문화의 속성을 가진 인물로 보거나⁶⁾ 이야기에 수용된 다양한 무속신화의 유입 양상을 살피거나⁷⁾ 자청비의 행위를 증시해 문화적 인물의 특성을 밝히려는 성과⁸⁾가 있다. 또한 혼인 문화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논의가 있어⁹⁾ 혼인문화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최근 21세기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문학과 사회를 연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구비문학은 적응성과 유동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당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작품과 연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다문화의 개념 설정 및 용어에 관한 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의¹⁰⁾와 지역어문학자원과 문화 콘텐츠화의 연계 방안¹¹⁾과 전자 매체의 구술문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구비문학의 정체성¹²⁾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구비문학 속의 다문화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골계전」을 대상으로 다문화와 관련하여 유형화한 업적과¹³⁾ 다문화관점에서 건국신화와 현대의 결혼

6) 좌혜경,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30호, 민속학회, 1998.

7) 이영지,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층 양상」, 『배달말』42, 배달말학회, 2008.6.

8)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호., 민속학회, 1999.

9) 김혜숙, 「濟州道 神話에 나타난 婚姻 研究」 『제대논문집(인문·사회)』36, 제주대, 1993.

10)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년 2월, 관동대학교.

11) 강정희, 「지역어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년 하계 전국학술발표논문집』, 2010년 8월, 경북대학교.

12) 이홍우, 「〈글로벌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의 구술문학적 분석」,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3) 임재혜, 「설화 속의 다문화현상 읽기」,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08년 2월, 관동대학교.

이민가족의 2세에 관한 구어서사를 분석¹⁴⁾ 하여 조명된 바 있다. 한편 현장론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논의로는 외국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구비문학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방법론을 제시¹⁵⁾ 하거나 〈선녀와 나무꾼〉과 〈우렁각시〉를 대상으로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설화의 교육적 방법론¹⁶⁾을 제시한 성과가 있다. 이외 동·서양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 논의로는 〈리어왕〉와 〈가문장아기〉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목된다.¹⁷⁾ 공·통시적으로 동떨어진 작품을 나란히 놓고 플롯을 비교하여 주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서양간의 문화적인 이질성을 간과한 한계성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화에 내재된 보편된 가치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단군신화와 바리공주의 신화적 상징성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¹⁸⁾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무속신화 가운데 대상 인물들의 겨루기 양상과 겨루기 특성을 분석하고 다문화의 특성에 대해 집중 조명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다문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4) 박진태,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5) 나수호, 「외국인이 보는 한국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6) 오정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7)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8) 이명현,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 『동아시아古代學』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8, 425-451쪽.

2. 외부 세계로의 진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 대상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화 속의 가족 이야기가 신화가 형성되었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 대상 범위를 가정내에서 혹은 가정 밖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혼사 장애를 겪는 여성 주인공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제주도 열두본풀이 신들 가운데 가문장아기와 자청비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모습,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 태어난 인물들이다. 이들은 생득적으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태어난 비주류계층에 해당한다. 가문장아기는 가난한 저지 부부의 셋째 딸로 태어나며 자청비는 아들을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태어난다. 상층과 하층이라는 수직적인 신분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정에서 또는 가정 밖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두 여성 주인공들은 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입체적 인물로 전환한다.

분석의 주된 논의는 이 두 여성 주인공의 여정 속에서 타문화권과의 접촉으로 인해 벌어지는 겨루기의 양상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추출된 겨루기 특징과 다문화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은 한 가정의 딸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을 둘러싼 세계는 인간세계든 초월 세계든 수직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경험하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겨루기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의 특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자료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고 화소가 풍부한 안사인본 『제주도 무가』를 대상¹⁹⁾으로 한다.

19)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1. 문화의 충돌

가문장아기가 겪는 문화적 충돌은 주류계층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서이다. 가문장아기는 세계의 횡포에 맞서서 자아를 찾기 위해 겨루기를 시도한다. 가문장아기의 겨루기는 계기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 두 차례나 펼쳐진다. 가정내에서의 겨루기 대상자들은 가부장 질서를 고수하려는 아버지와 언니들이다. 가문장아기는 이들과 차례로 접전을 벌이는데 대상인물에 따라 겨루기의 양상과 대응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첫 번째 겨루기판은 가문장아기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 겨루기판이 성립된 동기는 가문장아기의 아버지로 인해서이다. 아버지는 딸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겨루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언니들은 무조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일방적 동화를 꾀한다. 가문장아기는 언니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겨루기가 촉발된다. 아버지는 가문장아기의 대응을 지배자의 권력으로 제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겨루기판을 유발한 아버지의 모순성을 찾아보기로 하자.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이라는 윷마을 옷상실에 살고,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납은 아래 마을 제상실에 삽디다. 너무나 가난하여 어느 날 강이영성은 아래 쪽이 풍년이라는 말을 듣고 얻어 먹으러 가고, 흥운소천은 위쪽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얻어먹으러 가는데, 길에 구르는 돌도 연분이 있듯이 서로 만나 통성명하고 언약하여 부부살림을 하게 됩디다. 〈중략〉 은장아기·늦장아기·가문장 아기 삼형제가 태어나 한두 살이 되어가니, 점점 발복하여 유가전답이 생기고 우마가 생겨 처마높은 기와집 네 귀에 풍경 달아 천하거부가 되어간다.

위 이야기의 핵심은 '가난과 '부'라는 대립적 경제변화에 관한 동기를 찾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약하면 부모 세대에서는 가난하였으나 딸이 태어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세 딸 가운데 막내인 가문장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안은 순식간에 거부가 된다. 가문장의 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덕으로 집안의 부를 이룬 것이라

허세를 부린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가문장아기야말로 이 집안의 부를 가져온 인물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가문장아기의 아버지는 세 딸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고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시대적 이념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신화의 지향점이다. 가문장아기의 두 언니들은 아버지의 세속적 욕망에 부응했으나 가문장아기는 이를 거부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겨루기판이 벌어진다. 이 겨루기판에서 겨루기의 주체는 아버지이며 겨루기 객체는 세 딸 중의 막내딸인 가문장아기이다.

아버지: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

은장아기: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

늦장아기: 하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

가문장아기: 하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마는 내 배꼽 밑의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위발신합니다.

⇒결과: 두 딸은 집에 남고 가문장아기는 아버지에 의해 내쫓김

〈대단원〉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가 눈이 멀고 거지가 된 부모를 구원함

첫 번째 겨루기판의 주체는 아버지이다. 겨루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에 의해 유발된다. 이 때 현실 세계와 겨루기 세계는 공간적으로는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으나 그 사이의 간극은 크다. 현실 세계에서는 유교적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질서가 우세하나 겨루기 세계에서는 사회적 이념이나 세대간 갈등, 성별보다는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대응이 성립한다. 아버지가 가하는 가문장아기에 대한 핍박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질서 때문이다. 가문장아기는 모순된 사회질서에 맞서서 '부모의 덕보다는 자신의 배꼽 밑의 선의 덕으로 산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가문장아기에 대해 아버지는 가문

장아기를 집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겨루기가 본격화된다. 겨루기의 결과 현실 세계의 위상이 바뀐다. 결과적으로 가문장의 아버지는 세 딸들이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멀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대단원에 이르러서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용서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두 번째 겨루기판 역시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겨루기 대상은 가문장아기 대 언니들이다. 언니들은 아버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난 가문장아기를 데리고 오라는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 동인은 기득권을 쟁취하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다. 겨루기는 이러한 언니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촉발된다. 촉발의 매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다. 언니들은 현실세계에서는 주류계층의 인물들이지만 겨루기세계에서는 위상이 전복된다. 가문장아기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써 대응하여 언니들의 거짓을 밝힌다. 그 결과 언니들은 가문장아기의 응징을 받아 도리어 해를 당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 겨루기판에서 겨루기 주체는 두 언니이며 겨루기 객체는 가문장아기이다.

은장아기: “설운 아우야, 빨리 가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늦장아기: “설운 아우야, 빨리 가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가문장아기: “설운 큰형님, 노뎛돌 아래로 내려서면 청지네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가문장아기: “설운 둘째 형이랑 거름 아래로 내려서면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가문장아기는 아버지와 겨루기를 한 결과 집에서 쫓겨난 것과 달리 이 겨루기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문장아기는 언니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신성을 발휘한다. 그 결과 언니들은 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변한다. 겨루기의 결과로 인해 현실세계의 질서는 해체되고 새로운 관계가 성립한다.

가문장아가 가정의 안팎에서 겨루기를 펼친 것과 달리 자청비의 겨루기는 주로 외부 세계에서 펼쳐진다. 가문장아가 펼치는 겨루기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와 외부세계와의 갈등이 균형있게 설정되어 있지만 자청비의 겨루기는 혈연보다는 외부세계와의 겨루기에 치우쳐 있다. 자청비의 겨루기 주대상자는 신분과 계층이 뚜렷하게 다른 문도령과 정수남이다. 문도령은 옥황의 아들이며 정수남은 종이다. 자청비는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이들 인물들을 대상으로 겨루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

남편 탐색담에서 가문장아가 쫓겨난 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주인공인 마통이 삼형제를 대상으로 시험관이 되어 직접 남편을 선택한 반면, 자청비는 옥황의 아들인 문도령을 맞아 계층간 차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둘 사이에 가로놓인 수직적 질서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 이 중에서 자청비와 문도령의 겨루기는 자청비의 자유의사에 의해 촉발된 반면 자청비와 정수남의 겨루기는 정수남이라는 타의에 의해 촉발된 양상을 보인다.²⁰⁾ 먼저 자청비와 문도령의 겨루기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청비와 문도령〉

1)

자청비: “아버님이 글공부 올 때 하신 말씀이 ‘밤에 잠을 잘 때 은대야에다 물을 떠다놓고 은젓가락 놋젓가락 걸쳐놓고 잠을 자되, 은젓가락 놋젓가락이 떨어지게 잠을 자면 글이 둔하다’고 하더라.”

문도령: 자청비의 껍에 속아 잠을 자지 못하다.

2)

문도령: 글재주는 네가 좋지만, 그리 말고 오줌 내갈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청비: 그리하자

20) 자청비는 세속과 초월계 뿐만 아니라 서로 특성이 다른 인물들과의 경계에 놓인 인물이다. 구체적 논의는 권복순, 「자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16호, 실천민속학회, 2010, 201쪽-206쪽 참조.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문도령: 첫 번째 여섯 자 반을 내 갈긴다

자청비: 미리 왕대밭에 가 왕대죽순을 찢라다가 바짓굴에 담아 한번 힘을 써 내갈기니 열 두자 반이 나간다.

〈자청비와 정수남〉

1)

정수남: “상전님아, 이렇게 하십시오. 은길 같은 손이나 만져 봅시다.”

자청비: 정수남아, 내 손 만지는 것보다 집에 가서 토시 한 짝을 꺼 보라 더 좋다.

정수남: 이렇게 하십시오. 입이나 맞추어 봅시다.”

자청비: “내 입 맞추는 것보다 내 눕는 방안의 꿀단지를 혀로 훑아봐라. 더 달다.”

정수남: 이렇게 하십시오. 촛대 같은 허리나 안아 봅시다.”

자청비: “내 허리 안는 것보다 내 눕는 방안의 나 베는 베개를 안아봐라. 더 좋다.”

2)

자청비: 정수남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서산에 해가 지고 있으니 오늘 저녁 밤이나 지내게 돌로 담이나 쌓아 올려 움막이나 짓자.”

정수남: 동으로 뻗은 나뭇가지 서로 젖혀놓고 서로 뻗은 나무 가지 동으로 움막을 하나 지어노니, 담구멍이 배롱배롱한다.

자청비: 안으로 내가 불을 피우거든 불이 비치는 구멍은 풀을 베다가 막아라.”

정수남: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자청비: 정수남이 풀을 베어다 열 구멍을 막으면 자청비는 안에서 다섯 구멍을 빼고 이런 행동을 되풀이하니 날이 밝는다.

3)

자청비: 정수남아,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말안장이나 벗겨다 깔아서 무릎이나 베고 누어라. 머리에 이나 잡아주마.”

정수남: 자청비의 무릎을 베고 누우니 “이놈 살렀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이 늑부터 죽이자.” 옆에 보니 청미래덩굴이 있으니, 청미래 꼬챙이를 뽀족하게 만들어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나오게 잡아 찢렸더니 정수남인 얼음산에 구름 녹듯 죽어간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겨루기는 자청비가 문도령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데 있

는 반면 자청비와 정수남의 겨루기는 정수남이 자청비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들의 어긋난 삼각관계는 서로 교착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만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겨루기는 2회에 걸쳐 일어난다. 1)에서 겨루기의 주체는 자청비이며 겨루기의 동인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문도령은 자청비의 꾀에 넘어가 장원 급제의 자리를 내어준다. 2)의 겨루기 주체는 문도령이다. 앞선 겨루기에서 자청비의 꾀에 넘어간 문도령이 자청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줌 멀리 갈기기' 제안을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의심을 간파하고 그 위기를 보기 좋게 물리친다. 겨루기 세계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체성을 숨겨 남성위주의 세계의 횡포를 물리치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문도령과 결합하고자 한다. 그 결과 자청비는 현실 세계에서 잠깐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으나 문도령이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감에 따라 버림받은 여성이 된다.

두 번째 겨루기 대상자는 정수남이다. 정수남은 자청비가 문도령을 잊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빈틈을 타 자청비를 유혹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유인한 방법은 거짓말이다. 자청비는 그의 거짓에 속아 집밖으로 나가니 겨루기가 성립한다. 이들의 겨루기는 3회에 걸쳐 일어난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겨루기 양상은 겨루기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1)과 2)와 3)의 경우가 다르다. 1)의 경우 겨루기 주체는 정수남이며 겨루기의 동인은 자청비에 대한 섹욕이다. 그러나 2) 3)의 경우 겨루기 주체는 자청비이며, 그 동인은 정수남의 성적 희롱에 항거하기 위해서이다. 자청비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정수남은 그 꾀에 속아 목숨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이 자청비는 두 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겨루기를 벌이나 각각의 인물들이 목적하는 바가 달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자청비는 신분과 성격이 대립적인 인

물들을 대상으로 주체와 객체의 역할을 번갈아하면서 뜻을 이루고자 하나 끝내 실패한다.

자칭비를 둘러싼 첫 번째 겨루기의 대상자들이 혼인할 대상자들간에 벌어지는 여성대 남성의 겨루기라면 두 번째 겨루기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자칭비는 자신을 타자로 인식하는 외부 세계의 지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과의를 치르게 된다. 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조차 딸인 자칭비보다는 남성을 우대하는 차별의식을 보인다. 이런 수직적인 사회 질서는 초월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초월계도 지배자와 피지배자간 상하 구분이 뚜렷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자칭비는 이들의 세계로 진출함에 있어서 각 세계의 지배자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자칭비는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신성을 발휘하나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2.2. 융합의 도모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도 앞장서서 다문화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민자 혹은 소수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쌍방향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²¹⁾ 통합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충돌은 건전한 통합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충돌을 통해 서로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해와 절충안을 마련할 때 건전한 공동체로서의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므로 충돌은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건전한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도 주류문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류계층의 횡포를 직시하고, 그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들

21)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75쪽.

은 비주류계층에 속한 인물들이지만 주류계층에 무조건 동화되지 않고 겨루기를 통해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문화적 융합을 꾀하고자 한다.

우선 가문장아기가 문화적인 충돌을 해소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가문장아기는 문화간의 충돌을 혼인이라는 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문장아기는 능력을 발휘하여 상대 남성들을 시험하고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가문장아기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류계층문화와의 융합을 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큰형: “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애쓰게 마를 파다가 배 부르게 먹이다 보니 넘어가는 계집애를 데려다 놀음놀이 하고 있구나.” 하고 욕을 한다.

둘째 형: “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애쓰게 마를 파다가 배 부르게 먹이다 보니 넘어가는 계집애를 데려다 놀음놀이 하고 있구나.” 우리 집 마당엔 전혀 소도 안 메었는데 풍운조화가 들었구나.” 역시 욕을 해 댈다.

셋째 마통이: “하, 이거 우리 집에 난데없이 검은 암소랑 사람이랑 모두 들어와 있으니 어느 하늘에서 돕는 일이나 아닌가.” 하고 반가워하며 들어온다.

2)

큰형: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 많이 먹었으니 마 모가지나 드십시오.” 마모가지를 꺾어드리고 자기는 잔등이로 우막우막 먹는다.

둘째 형: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 많이 먹었으니 마 꼬리나 드십시오.” 마 꼬리를 끊어준다.

셋째 마통이: 설운 어머니님, 아버님, 우리를 낳아 키우려 하니 얼마나 공이 들고 이제 살면 몇 해를 살 겁니까.” 양끝은 꺾어두고 잔등이로 드린다.

3)

큰형: 가문장아기가 찹쌀을 잘 일어서 밥을 하고 큰 마통이한테 들고 가니, “조 상대에도 아니 먹었던 이런 벌레밥 안 먹겠다.” 팔죽같이 화만 낸다.

둘째 형: 이런 벌레 밥 안 먹겠다.” 팔죽같이 화만 낸다.

셋째 마통이: 작은 마통이한테 들고 들어가니 서로 통성명하고 듬뿍듬뿍 떠서 먹는다.

⇒ 결과

큰 마통이가 마 찢던 데는 누릿누릿한 것이 있어'이지 무엇인가'하여 쥐어보며
똥만 물컹물컹 쥐어진다.

둘째 마통이가 마를 파던 데는 '이거 무엇인고'해서 보면 지네, 뱀 짐승들이 가
득하다.

작은 마통이가 마를 찢던 데는 자갈이라 하여 주워 던져버린 것이 있어 곁에
묻은 흙을 쓸어보면 금덩이이고, 주워 보면 은덩이이고 둥글둥글 나온다.

이 시험의 공간은 가문장아기의 집 밖인 산속의 초막에서 벌어진다. 가문
장아기에게 있어 외부세계는 타문화권의 영역에 속한다. 쫓겨난 딸로서 정
체성의 혼란을 겪은 가문장아기가 마통이가 사는 공간에서는 존재의 전환을
시도한다.

가문장아기가 그들을 탐색한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이다. 시험의 내용은
세 인물을 대상으로 똑같이 제시된다. 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
한 의식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가문장아기는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물음을 통해 세 마통이를 관찰한다. 그 결과 두 형들은 실격하고 셋째 마통이
만 통과한다. 두 번째는 '효의식'에 관한 물음이다. 이 시험 또한 셋째인 작은
마통이만 통과한다. 세 번째는 '이질적 문화 수용여부'에 관한 문제다. 첫째
와 둘째 마통이는 자신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 하여 타문화를 거부하지
만 셋째 마통이는 조상대부터 먹지 않은 찰밥이지만 이를 수용하여 맛있게
먹는다. 이로써 마통이 삼형제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문장아기〉에게 남편의
조건을 시험받는다. 그 결과 각자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절한 응징과 보상을
받는다. 두 형들은 마 찢던 구덩이에서 똥이나 지네, 뱀 등이 우글우글한
응징을 받게 되고 막내 마통이는 마를 찢던 구덩이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문장아기와 결혼까지 하는 행운을 누린다.

이상에서 드러난 문화의 융합과정을 살펴볼 때 가문장아기의 문화의식은
우월과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문화상대주의의 가치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 아래 평등한 사회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막내 마통이가 가문장아기에게 남편으로 선택된 것은 막내 마통이 야말로 가문장아기가 추구하는 사회의 질서와 융합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분과 문화가 다른 부부의 탄생은 결혼을 통해 기존 세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문화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²⁾

이에 반해 자청비는 혼인을 함에 있어서 시험을 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객체의 입장에 놓인다. 자청비가 경험하는 세계는 보다 확장된 공간으로 문화적인 격차가 뚜렷하게 다른 저승과 하늘 세계다. 그러므로 자청비의 정체성 확립 과정은 가문장아기에 비해 보다 입체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초월 세계의 지배자들은 그들의 세계로 진입하는 자청비를 수용하는 데 있어 문화적인 우월감 속에서 며느리(사위)의 자격시험을 거쳐 그들의 세계에 종속시키려 한다.

〈자청비와 황새곤간〉

황새곤간: 우리 집에 이 밤 저 밤 되면 봉새가 노뎃들에 앉아 울기 시작하면 우리 집안에 흥함을 주고 서천 꽃밭에 멸망을 줍니다. 그 봉새를 잡아주면 우리 집에 사위를 삼겠습니다."

자청비: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자청비는 정수남의 혼령에게 봉새로 변하게 하여 봉새를 유인하여 화살로 죽인다.

〈자청비와 옥황상제〉

옥황: 이놈 저놈 죽일 놈아, 이게 무슨 말이나?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선 자 구덩이 파 숲 선 섬을 묻어 불을 피워 놓고, 불 위에 칼날이 선 다리를 놓아서 타 나가고 타 들어와야 나의 며느리 자격이 있다."

자청비: 비옥 같은 얼굴에 염주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발에 신었던 백능버선을 벗어두고 박씨 같은 발로 칼날이 선 다리 위로 올라선다. 한 발은 땅에 놓고 한 발은 칼날 위에 있을 때에 살짝 뒤꿈치가 베어진다.

22)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고정되거나 보편적이지 않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 변호하고 변형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118쪽)

서천꽃밭의 지배자인 황새곤간은 남장을 한 자청비를 사위감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일종의 통과시험을 치르게 한다. 자청비가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황새곤간은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이고자 하나 자청비가 떠나는 바람에 실패한다. 이로써 자청비의 의사에 관계없이 황새곤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혼인은 자청비가 떠남으로써 무산된다.

두 번째 시험은 옥황에 의해 치러진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쫓겨나 주모할 머니와 궁녀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다. 그 곳에서 문도령의 아버지인 옥황에게 떠느리 자격시험을 치른다. 자청비는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혼인이 이루어질 듯 했으나 이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한다. 외부세계의 인물에 불과한 자청비가 주체로서 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세로 돌아감에 따라 옥황은 땅과 물, 오곡을 주는 보상을 내려준다.

혼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두 인물의 양상은 다르다. 가문장아기가 막내마통이와 결혼을 한 반면 자청비의 결혼은 실패로 끝난다. 자청비가 가문장아기에 비해 갖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외부 세계의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세계로 종속시키려는 데에 있다. 자청비가 끝내 문도령과 혼인을 하지 못하는 비극성은 일반적으로 신화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다. 신화의 결말이 신직의 본풀이임을 감안할 때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해피엔드로²³⁾ 끝나는 것과 달리 불행한 결말로 끝난 것은 특정 신직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만 다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화의 소통과 융합이 실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58쪽.

3. 겨루기 특성과 다문화적 성격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특성을 살펴보면 겨루기의 주체가 되는 두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에 처해 있으나 겨루기판에서는 단연 우월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겨루기 세계는 현실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를 지향한다. 현실사회에서 갈등은 이념, 계층, 경제, 세대, 인종, 종교의 다름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편견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겨루기 세계에서는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의 경계를 넘어선 상호보완적인 세계를 지향한다.²⁴⁾

이 신화의 여성주인공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현실 세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반인 반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루기 세계에서는 영웅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이중적인 역동성을 가문장아기나 자청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인물들의 겨루기 특징을 살펴볼 때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가문장아기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혈연의 관계 및 자아 독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자청비는 혼인을 통한 자아 독립 쪽에 훨씬 치우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장아기는 혼인에 성공하고 자청비는 실패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결과적으로 가문장아기는 기존의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혼인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했으나 자청비는 질곡한 삶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류문화의 벽에 가로막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겨루기판의 무대나 타문화간의 접촉에 있어서 자청비의 세계가 훨

24) 단군신화의 환웅과 웅녀의 결합, 주몽신화의 해모수와 유화의 결합, 주몽의 졸본과 송양의 비류국의 통합,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결합을 동화의 정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통합과 공존으로 보는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 (이명현,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 『동아시아古代學』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8, 438쪽)

씬 크다. 자청비가 가문장아기와 달리 여성이라는 성적인 열세를 감추기 위해 남장을 하는 등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 것은 그만큼 자청비를 둘러싼 주류 문화의 세력이 공고함을 뜻한다. 자청비가 임시방편으로 남장을 한 것은 주류문화권의 일원으로 소속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질서는 초월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청비가 끊임없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인세이다. 이 곳에서 자청비는 이전까지의 사회적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인세를 다스리는 세경신이 된다. 신화의 관점으로 보면 자청비가 겪는 고난의 과정은 신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에 해당하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는 주류문화에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문장아기의 양상은 다르다. 가문장아기도 이질적인 문화와 계속 충돌한다. 처음에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세대간의 충돌이 일어나며 두 번째는 언니로 대변되는 기득권과의 차별을 경험한다. 또한 외부의 세계로 나아가서도 여전히 차별을 당한다. 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쫓겨난 딸의 신분에서 혼인을 통해 그들과 융합을 꾀한다. 나아가 혼전의 불화한 아버지와 화합하고,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타문화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는 문화적 우열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고 문화적 융합을 꾀하고자 정면으로 맞선다. 다문화적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우선 다름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된다. 타자에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충돌을 경험하고 그 다름의 차이를 인식할 때 상호간의 영향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삶의 과정은 존재의 전환을 통해 부모와 딸의 화합과 변형,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서사가 집중²⁵⁾되고 있다. 다문화의 지향점이 융합이라고 할 때 가문장

25)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화회, 2008, 301쪽.

아기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떠나 다른 문화와 적응하는 가운데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얻어 다문화의 지평을 확장해 나간다. 아버지는 부자에서 거지로 막내마통이는 거지에서 부자로 만든다. 자신 또한 쫓겨난 딸에서 아버지를 구원하는 인물로 만들어나간다. 자청비도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 맞서서 정면으로 그들과 겨루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주류문화의 횡포에 밀려 그들의 세계를 완전하게 바꾸지 못한다. 이를테면 세속계에서는 아버지의 세계가, 초월계는 옥황과 황새 곤간의 세계가 그대로 존속한다.

이와 같은 두 인물이 별이는 겨루기의 특성을 다문화의 특성과 관련지어 볼 때 가문장아기의 이야기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중에서도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의 문화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자청비이야기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를 우위에 두고 소통하는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4. 다문화시대와 여성의 삶

가문장아기나 자청비가 혼인을 매개로 자신이 살던 세계를 떠나 타문화권의 남성들과 만나 족외혼을 시도했듯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들 상당수도 그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이 타의에 의해 또는 자의로 그들의 세계를 떠나 혼인한 것은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주류사회에서 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혼이주민들이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 삶이 다르듯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민들의 삶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한 부류는 가문장아기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주변의 관심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주류계층에 밀려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떤 경우이든 타국에서의 삶은 힘들기 마련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식민지경험과 한국전쟁, 고도의 압축성장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내부의 단결을 위하여 단일민족주의를 강화하였기²⁶⁾ 때문이다. 타자를 배척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이 외부세계로 진입할 때 타자로서의 삶을 강요받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결혼이주민들이 타자와 주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로 볼 때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들에게 안정된 삶의 기반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혈통주의만을 고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다문화시대가 열린 것이다.²⁷⁾

가문장아기가 아버지에게 복종을 강요받는 것에서 벗어나 마통이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가문장아기의 삶은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 신부가 한국으로 시집오면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언어문제, 식성, 취미, 사회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 등 외국인 신부는 기존의 다른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외국인 신부의 정체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식에 동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²⁸⁾

26) 이명현,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 『동아시아古代學』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428쪽

27)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186쪽.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살아왔던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살아가고자 할 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달라진 환경에서 새롭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문장아기나 자청비가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문화적 충동을 경험했듯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간의 접촉은 갈등과 저항의 원인이지만 때로는 공존과 협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에서 생활하던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대위법²⁹⁾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³⁰⁾

5. 마무리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이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혼인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과정은 오늘날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결혼 이주민들이 겪는 현실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외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타자로서의 삶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다.

여성 주인공들은 종속되기를 강요하는 타자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겨루기를 선택한다. 겨루기는 타문화와 접촉에 있어서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주류문화권의 우월의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28) 이명현,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우리文學研究』33집, 우리문화회, 2011, 151-152쪽.

29) 대위법이란 일정한 기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선율을 결합하는 음악 용어로 사이드는 이 용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2개의 집단이나 사회가 하나의 화음을 이르듯 공존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30)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186쪽.

이들에게 혼인은 문화와 문화간의 융합을 꾀하는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성 주인공들은 가정을 떠나 외부 세계로 나가 족외혼을 도모하지만 결과에 있어 차이가 난다. 두 주인공 모두 족외혼을 하는 과정에서 타문화권의 충돌을 피하지 않고 겨루기를 통해 소통을 꾀한다. 가문장아기의 경우 주류문화권의 배척에 맞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화간의 융합을 꾀한다. 반면 자청비의 경우 주류문화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장을 하거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 여성 주인공의 삶의 여정을 두고 볼 때 신화적 측면에서 보면 특정 신적 기능에 대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지만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주류문화권과 비주류문화권과의 접촉과 소통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경우 비주류계층으로서 주류문화를 해체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여 주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즉 혈연으로 맺어진 딸의 신분에서 벗어나 혼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반면 자청비는 혼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세계로의 진입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주류문화에 정착하지 못한다.

인물들이 벌이는 겨루기의 특성과 다문화적 성격을 관련지어 볼 때 가문장아기의 경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중에서도 주류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비주류문화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자청비의 경우는 주류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소통하는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과 같이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족 및 사회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사회는 더 이상 주류국가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다문화를 인정하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할 때다. 가문장아기나 자청비가 비주류계층의 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해야만 했던 구시대

적인 이념이나 인종적 갈등 등을 청산하고 결혼이주민들을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 줄 때 이들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정원(2008), 「다문화시대 구술문화의 정체성과 위상」,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107-116.
- 강정희(2010), 「지역어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 『한국문화언어학회, 2010년 하계 전국학술발표논문집』, 경북대학교, 1-9.
- 고은지(1999),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호, 민속학회, 53-76.
- 권복순(2010), 「자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16호, 실천민속학회, 191-213.
- _____ (2010), 「설화의 현대적 수용과 문화 콘텐츠」, 『제3회 우리말글교육학회 국제세미나』, 진주교육대학교, 1-6.
- 김대숙(1999), 「한국신화의 가족구성체계 연구1」, 『평택대학교논문집』13집, 평택대학교, 45-59.
- 김미경(2008), 「진도 씻김굿 무가에 수용된 다문화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55-76.
- 김재용(2009), 「무속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53-74.
- 김현주(2008), 「판소리의 매체융합적 속성과 그 문화적 연변」,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81-94.
- 나수호(2008), 「외국인이 보는 한국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147-175.
-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 박진태(2008), 「민속극의 놀이꾼과 구경꾼의 관계에 투영된 문화융합」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95-103.
- _____ (2008),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89-112.
- 오정미(2008),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177-210.
- 이명현(2011),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 『동아시아古代學』재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425-451.
- _____ (2011),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우리文學研究』33집, 우리문학회, 151-152쪽.
- 이영식(2008), 「민요사설에서의 다문화 존재양상」,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41-54.
- 이영지(2008),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응 양상」, 『배달말』42, 배달말학회, 225-256.
- 이인경(2008),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277-309.
- 이진경(2002), 『노마디즘』, 휴머니스트.
- 이홍우(2008), 「〈글로벌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의 구술문화적 분석」, 『구비문학연구』27집, 한국구비문학회, 242-276.
- 임재해(2008), 「설화 속의 다문화현상 읽기」,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7-39.
- 조동일(1992),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 좌혜경(1998),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30호, 민속학회, 181-199.
- 최원오(2008),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관동대학교, 1-6.
- 평택대 다문화센터 편(2007),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 허영식(2010),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강현출판사.

현승환(1993), 「삼공본풀이 전승의식」, 『탐라문화』13집, 탐라문화연구소, 31-50쪽.

현용준, 현승환(1996),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현용준(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_____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황인덕(1998),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18집, 어문연구학회, 115-128.

〈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 aspect and multiculturalism of
〈Kamoonjang-ahgi〉 and 〈Jachengbi〉**

Kwon, Bok-soo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multi-cultural features by examining cultural conflict and process of syncretism from the case of 〈Kamoonjang-ahgi〉 and 〈Jachengbi〉 when they enter the outside. By doing this,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people who live in Korea society can be recognized.

Main objects of discussion are 〈Kamoonjang-ahgi〉 from 〈Samgongbonpuli〉 and 〈Jachengbi〉 from 〈Sekyeongbonpuli〉 who are the main characters of general god 〈Bonpuli〉 of Jeju. They are born as a woman who is a second-class citizen and they constantly built their lives against a male-centric patriarch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ythology, the hardships that they went through are a rite of passage to become goddes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 cultures, these hardships can be recognized as a conflict with other cultures in the process of the marriage. The common point of hardship that the heroines go through is the identity confusion in relationships of the characters of mainstream culture area.

They build up their identity through the competition in the tyranny of mainstream power, preceded by cultural supremacy. The world surrounding them is divided into the real world and the competition world. The mainstream power in the real world is dominant. On the other hand, the heroines of non-mainstream in the competition world are dominant. The aspect of two heroines is differ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Kamoonjang-ahgi〉 protects the sexual identity of female, tears down a wall of the mainstream and the non-mainstream. And she pioneers the life of the main stream. On the other hand, 〈Jachengbi〉 dresses a male attire to recover sexual inferiority and try to enter the mainstream society actively. But she doesn't tear down the existing wall and exists as a foreigner.

Life of two heroines has a resemblance to lif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people who live in Korea society. Some people live like

배 달 말(51)

〈Kamoonjang-ahgi〉 who establishes a subjectivity. The others live like 〈Jachengbi〉 who loses subjectivity. So, a proper government policy and caring of society are necessary for them to coexist as members in Korea society.

Key words: mainstream culture, non-mainstream culture, cultural conflict, cultural syncretism, equality, discrimination, coexistence

이 름: 권복순

근 무 처: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 소: [660-300] 경남 진주시 가좌동 773번지 연암아파트 101호

전 화: 055) 759-8854, 010-5587-8854

전자우편: grara@dreamwiz.com

논문 접수: 2012년 10월 25일

심사 완료: 2012년 11월 30일

계재 확정: 2012년 12월 5일